

비용절감하는 해양, 순항하는 굴삭기,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코멘터리

대표 차트

선가지수는 제자리를 지켰고, 이번주는 수주 업데이트나 수주설이 없습니다.

- ① 중고선가와 신조선가지수는 제자리를 지켰고, 파나막스 벌크선 중고선가(5년)은 16%나 상승했습니다.
- ② 지난주 한국 조선업의 클래스 신규 수주 업데이트는 없었고, 새로운 수주설도 없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되는 "돌아오는 해양"과 관련하여

- ③ 최근에도 몇몇 Cost Overrun이 발생한 사업도 있지만, 최근 17개 해양 사업 중 14개가 평균 4%의 비용 절감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Johan Sverdrup, Oseber Vestflankan 2, Aasta Hansteen, Maria 4개 사업은 최근 1여년간 각각 18%, 13%, 3%, 19%의 원가 절감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계약 전략 수정, 프로젝트 관리 개선, 드릴링 효율 개선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현재 FEED 및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초기부터 더 큰 폭으로 BEP를 낮추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의 해양 발주 전망은 밝습니다. 다만, 3Q17 ~ 1Q18 실적 하강에 따른 주가 영향이라는 불확실성이 남아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주가 상승의 이유는

- ④ 9월 중국 굴삭기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97% 성장했고, 두산인프라코어의 판매량도 106% 늘었습니다. 시장의 YoY 100% 안팎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어, 4분기는 3분기보다 판매가 많고 연간 12만대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⑤ 또한 파워팩 결합으로 양산이 지연되고 있는 K2 전차 사업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엔진과 STX중공업 대신 독일산 변속기 조합으로 생산을 진행할 가능성이 대두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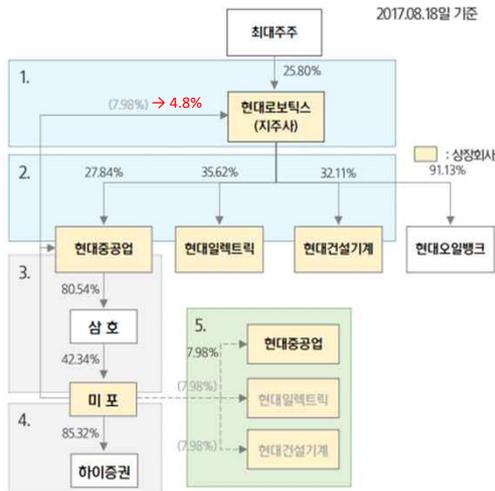
탈원전 정책이 확정된 가운데, 원전 수출은...

- ⑦ 한수원 APR1400의 유럽수출형 원전 EU-APR의 표준설계가 유럽사업자요건 인증 본심사를 통과해, 유럽과 남아공, 이집트 등에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⑧ 때마침 체코 정부 원전특사가 한국을 방문해 원전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⑨ 또한 백운규 산업장관은, 탈원전과 원전 수출은 별개로 수주를 적극지원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막바지.

- ⑩ 이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주말,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회가 진행 중입니다. 일요일 저녁, 찬성/반대 설문조사를 마치고, 다음주 공론화위원회는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작성해 20일(금) 오전 10시 공식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사 재개로 최종 권고안이 결정될 경우 최근 원전 수출 기대감과 더해져 두산중공업의 주가 회복 그림이 예상됩니다. 다만, 여론조사 추이가 여전히 찬반이 팽팽해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현대미포조선의 현대중공업 보유지분 4.8%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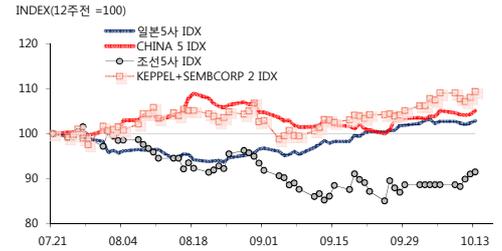


▶ 한국 조선업 인력 조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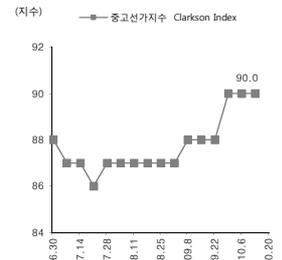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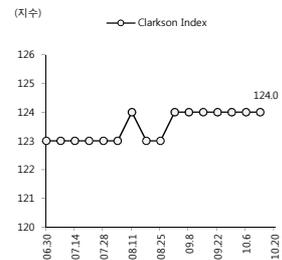
항목	2017년	감소폭	2016년	2015년
조선업계 인력	162,777	-20%	203,513	204,000
조선	98,705	-19%	121,311	
해양	49,658	-26%	66,774	
현대중공업	36,000	-31%	52,300	
대우조선해양	30,200	-14%	35,000	
삼성중공업	35,800	-16%	42,400	
그외	60,777	-18%	73,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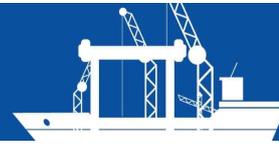
(단위: 명)

▶ 한/중/일/싱 주가 추세



▶ 신조선가지수 포함 & 중고선가지수보합





주시 뉴스

※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

△ 조선 불황의 터널...

- ▷ 조선업계, 인력 1년새 4만명 이탈...구직자도 대폭 감소
- ▷ 국감 나온 권오갑 "군산조선소 2019년 재가동하기 쉽지 않다"
- ▷ 성동조선 다음달 중순 일감 떨어져 휴직 불가피

△ 원전 수출은 계속 될 것인가?

- ▲ 한수원 "수출형 한국 원전, 유럽사업자협회 인증 심사 최종통과"...유럽 수출길 열렸다
- △ 한수원 찾은 체코 원전특사, 한국형 원전 도입에 관심
- △ 백운규 산업장관 "원전 수출과 탈원전은 별개...수주 적극 지원"

△ 두산인프라코어 주가 상승 이유

- △ 중국 9월 굴삭기 판매: 시장 YoY +97%
- ▲ K2 전자 파워팩 국산화 물건너가나: 두산인프라코어의 엔진 + 독일산 변속기 추진할 수도

ASP & 실적관련(국내외)

△ 신조선가치수와 중고선가치수 모두 보합

신조선가는 전선종 변동 없었고 지수도 124p 보합
중고선가는 선령 5년의 파나막스 벌크선이 \$18.5m에서 \$21.5m으로 16%나 상승했지만 여타 선종 보합으로 90p 보합

△ 삼성중공업 건조, Appomattox hull, 미국 도착

- 삼성중공업이 제작한 Appomattox semisub의 Hull이 Shell의 GOM 현지에 도착
- Kiewit의 탐사이드와 integration이 후속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은 65% 기성 도달
- Appomattox는 175천b/d 생산용량의 FPU로, Shell이 79%, 중국 CNOOC가 21%를 보유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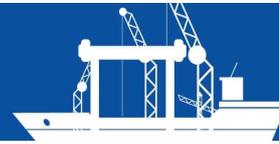
▶ 해양 생산

△ Total의 Martin Linge, Cost Overrun 42%, 그러나

- Total은 2019년 상반기 생산개시할 Martin Linge 사업의 비용이 Nkr 12.1bn(\$1.5bn) 이상 늘어서,
- PDO(Plan for Development & Operation)의 Nkr 29.2bn대비 42% Cost Overrun이 발생했다고 밝힘
- Cost Overrun은 삼성중공업에서의 탐사이드 인도 지연과 비용 상승, 최근에는 크레인 사고에 따른 또다른 인도 지연 때문
- 그러나, Martin Linge 외에 북해 지역의 다수 사업들의 개발비용은 최근 오히려 절감되고 있다고 전망: 17개 프로젝트들 중 14개는 PDO 대비 4% 낮아졌다고 집계됨

▲ 비용 절감에 성공한 4개 해양 사업 & 17개 중 14개 사업 최근 원가 절감 성공

- 1) 노르웨이 Johan Sverdrup은 작년부터 1년 사이에 Nkr 6.9bn의 비용을 추가 절감해, 총 Nkr 22bn의 초기 계획 대비 18%의 원가 절감에 성공
 - 계약가 할인, 프로젝트 관리 개선, 드릴링 효율성 등을 통해
- 2) Statoil의 Oseberg Vestflankan 2 PJT도 초기 투자계획 Nkr 7.1bn 대비 13%인 Nkr 1.1bn 비용 감축에 성공
- 3) 반면 Aasta Hansteen은 초기계획 Nkr 38bn 대비 +12%의 Nkr 4bn의 비용증가가 사업 초기에 발생했지만,
 - 최근 1년 여간 Nkr 1bn 이상의 비용 감축에 성공
- 4) 독일 Wintershall의 Maria 필드 프로젝트도, 최근 1년간 초기 PDO Nkr 13.1bn 대비 19%나 되는 Nkr 3.1bn의 비용절감에 성공
 - 또한 사업 진행 속도를 더 끌어올려, Onstream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중
 - 이 네개의 사업에서 Nkr 11.7bn의 비용 절감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Clarksons 신규 수주 업데이트

②지난주 없음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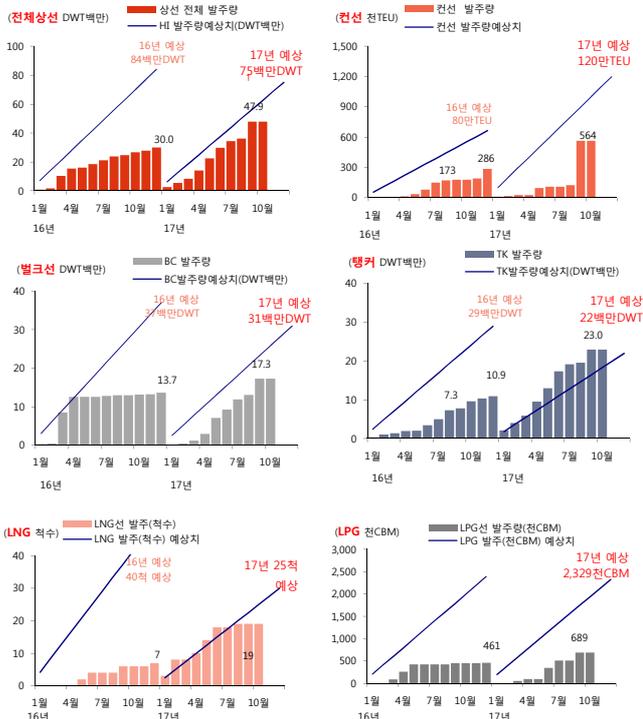
신조 발주설(뉴스 단계)

이번주 없음

없음...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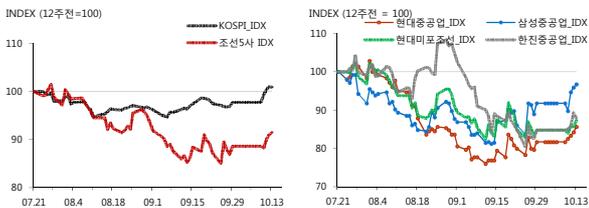


▶ 신조 발주 내역 - 한/중/일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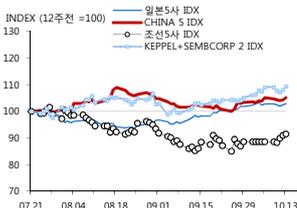
국가	조선사	계약일	발주 국가	발주처	Type	크기	인도	척수
17년09월2주								
BIG6	Hyundai Vinashin	17.7.28	유럽	DSD Shipping A/S	PTK	50k DWT	2020	2
민영	Fujian Mawei SB	17.9.8	중국	Fuchuan Investment	OTHERS		2019	1
	GST Nansha	17.7.24	유럽	TORM A/S	PTK	50k DWT	2019	4
		17.3.31	아시아	Formosa Plastics Co	PTK	50k DWT	2019	3
		17.3.24	중국	CSSC Leasing	PTK	76k DWT	2018~2019	2
17년09월3주								
BIG6	Hyundai Vinashin	17.9.11	유럽	DSD Shipping A/S	PTK	50k DWT	2020	2
	Daewoo (DSME)	17.9.20	유럽	MSC	CONT	22k TEU	2019~2020	5
	Hyundai HI (Ulsan)	17.8.30	아시아	Swan Energy	LNG	#VALUE!	2020	1
국영	Hudong Zhonghua	17.9.19	유럽	CMA-CGM	CONT	22k TEU	2019~2020	4
	Jiangnan SY Group	17.9.22	유럽	Petreded	LPG	84k cu.m.	2019	2
	Shanghai Waigaoqiaco	17.9.19	유럽	CMA-CGM	CONT	22k TEU	2020	4
	CSSC	17.9.19	유럽	CMA-CGM	CONT	22k TEU	2020	1
민영	Yantai CIMC Raffles	17.2.1	중국	Beibu Gulf Tourism	FERRY	0k Pas.	2018	2
	Dalian COSCO KHI	17.8.1	아시아	Eastern Pacific Shpg	BULK	61k DWT	2019	2
일본	Sasaki Zosen	17.9.20	일본	Toda Kisen K.K.	LPG	5k cu.m.	2019	2
	Sasebo HI	17.5.1	Unknown	Unknown	BULK	85k DWT	2019~2020	6
17년09월4주								
BIG6	Hyundai Mipo	17.4.1	유럽	Sea World Manager	PTK	50k DWT	2018~2019	2
	Samsung HI	17.9.25	유럽	MSC	CONT	22k TEU	2019	6
	Hyundai HI (Ulsan)	17.9.25	한국	Polaris Shipping Co	BULK	325k DWT	2019~2021	10
중국	Shanghai Waigaoqiaco	17.9.25	북미	Foremost Maritime	BULK	180k DWT	2019	2
중국	PaxOcean Zhuhai	17.5.1	아시아	PSA Marine	OFF-기타		2018	1
	Nantong Xiangyu	17.9.21	중국	Jiangsu Fanzhou	OFF-기타		2019	1
일본	Oshima Shipbuilding	17.9.29	북미	Fednav	BULK	35k DWT	2019~2021	6
17년10월1주								
중국	Jiangsu New YZJ	17.9.1	남미	Interocean	BULK	82k DWT	2019	1
일본	JMU Kure Shipyard	17.5.1	일본	Nippon Yusen Kaisha	CONT	14k TEU	2019~2021	5
17년10월2주								
국영	Huangpu Wenchong	17.9.27	중국	Donghai Rescue	OFF-SUPP		2019	1
민영	Jiangsu New YZJ	17.7.1	유럽	Navibulgar	BULK	45k DWT	2019~2020	4
	PaxOcean Zhuhai	17.5.1	아시아	PSA Marine (Pte) Ltd	OFF-기타		2018	1
	Hin Lee Shipyard	17.4.1	아시아	Cheoy Lee Shipyards	OTHERS	0k LOA	2018	2
			Unknown	Unknown	OFF-기타		2018	2
일본	Hakodate Dock	17.5.1	일본	ITOCHU Corp	BULK	34k DWT	2019	1

Peer Group 등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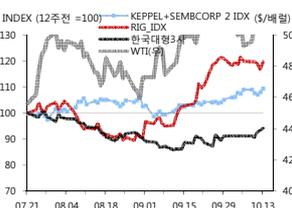
▶ 한국 조선 대형3사, 중형3사 INDEX



▶ 조선업 한중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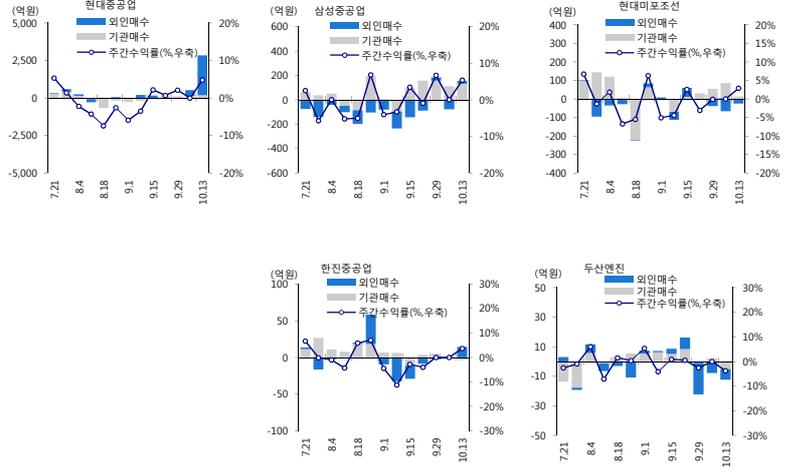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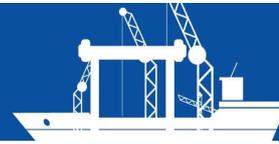
▶ 유가 VS 리그선주, 싱가포르 Offshore 제작사



조선 수급

▶ 조선6사 수급





국내 보도

▶ 공통 보도

▷ 조선업계, 인력 1년새 4만명 이탈...구직자도 대폭 감소

<http://lnr.li/vYUJ>

작년 3만7000명, 올해 상반기 3만5000명 줄어 '고강도 구조조정 여파'

13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발간한 '조선자료집 2017'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업계 인력현황은 16만2777명으로 전년 20만3513명 대비 3만7236명 감소
조선부문 인력은 9만8705명으로 1년 만에 2만2606명이 줄었고 해양부문은 1만7116명 감소한 4만9658명
조선 인력은 2014년 20만4000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 20만3000여명으로 20만명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뚝 떨어졌
조선사별로 보면 현대중공업은 3만6000명으로 1만6300명이 줄었고 대우조선해양은 3만200명으로 4800명 감소
지난해 3900명이 증가했던 삼성중공업은 6600명이 줄은 3만5800명으로 집계

▶ 현대중공업 보도

△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주식 180만주 처분 결정

<http://lnr.li/Woku>

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2637억원 규모의 현대중공업 주식 180만주를 시간의 대량매매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공식
현대중공업의 잔여 지분은 4.8%(272만558주)

▽ △ 현대미포, 현대중 잔여지분 로보틱스에 넘기나

<http://lnr.li/LJMNq>

매각 단가는 지난 10일 증가인 14만 6500원에 할인율 3%를 적용한 14만 2100원: 이번 거래로 약 2558억 원을 확보, 잔여 지분은 4.8%
업계에선 현대미포조선이 현대중공업 잔여 지분의 상당 부분을 현대로보틱스에 넘길 것으로 봄
지주회사의 계열사 지배력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비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할 때 현대로보틱스가 이 지분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
현대미포조선이 잔여 지분 4.8%를 현대로보틱스에 넘길 경우 현대중공업 지분율은 32.6%로 상승

▽ 현대중... 노사협상도 '점철산중'

<http://lnr.li/cLqQ>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부문 인력 600여 명을 대상으로 5주 간의 순환 휴직에 들어간 상태
여기에 추석 전 까지 임단협 타결을 매듭짓지 못하면서 노사 갈등이 깊어짐
지난해와 올해 임금협상(지난해 임단협, 올해 임협)을 동시에 진행 중이지만 올해 안에 협상 타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주요 쟁점은 '상여금 분할지급'
회사 측은 지난해와 올해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상여금 800% 중 300%를 12개월에 나눠 지급하는 등의 안을 내놨지만, ...
... 노조는 사측이 기본급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여금 분할을 추진한다고 반발

▷ "군산 재가동 땀 1,000억 손실...정치 아닌 자본원리 따져달라"

<http://lnr.li/4S9PE>

경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은 정치권에 수년째 불황에 직면한 우리 조선업의 현실을 절절히 설명
군산조선소의 재개를 묻는 의원들에게 "현재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면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권 부회장의 답변

▽ ▷ 국감 나온 권오갑 "군산조선소 2019년 재가동하기 쉽지 않다"

<http://lnr.li/qejeQ>

현대중공업은 수주 잔량이 75척에 8개월치밖에 없어 8개월 후면 울스톱할 가능성: 기존 캐파로 가동 시
: 보통 연간 100~120척의 선박을 짓고 수주 잔량은 200~300척에 달했지만 올해 수주량은 30척 정도에 불과
앞서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기업인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
... "2019년이 되면 (조선 업황이) 호전될 것 같다. 군산조선소도 어려움을 참고 견디다가 2019년부터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 권 부회장은 이런 최 회장 발언과 관련한 김관영 의원의 질문에 "최 회장이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
"정부는 자본시장 원리에 따라 정확히 시장에서 정리해 달라"며 "국가 운명회사와 열심히 일하는 회사를 똑같이 취급해선 안 된다"고 지적
: 업계에서는 13조원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분석

▶ 삼성중공업 보도

▲ "회사부터 살리자"...임협 미룬 삼성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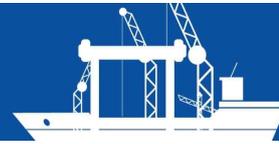
<http://lnr.li/McB7A>

노사가 올 7월부터 시작한 임금협상(임협)을 잠정 보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모적인 협상을 이어가기 보다는 수주·선박 건조 등 생존에 집중하기로 노사가 합의
삼성중공업과 근로자 대표기구인 노동자협의회(노협)는 지난달 26일 올해 임협을 종결하고 노사가 함께 위기극복에 나서기로 결정
임협은 지난해와 올해분까지 묶어 내년에 3개년도에 대한 협상을 동시에 진행
삼성중공업은 올해 약 63억\$를 수주해 목표치를 채웠지만 수주잔량은 계속 감소 중: 지난해 말 기준 267억\$(90척)였던 수주잔량은 올 8월 기준 206억\$(71척)로 감소

▽ ▷ 삼성중공업, 임금 10% 반납 '내년으로'

<http://lnr.li/Ziq8R>

노사가 자구노력 차원에서 추진해온 생산직 및 사원, 대리급에 대한 임금 10% 반납 협상을 중단
삼성중공업은 노조 격인 노동자협의회(노협)와 임금 반납을 비롯한 올해 임금 협상을 중단하기로 지난달 26일 합의
삼성중공업은 생산직을 중심으로 한 '임금 10% 반납' 안이 무산되자 노협과 순환휴직 협상을 통해 추가 비용절감 방안을 마련



▶ 대우조선해양 보도

▷ 대우조선해양, 상장폐지 '예측 부분'

<http://lnr.li/74bTz>

거래소는 지난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대우조선해양을 상장폐지시키는 대신 1년 동안 개선 기간을 부여; 개선기간은 지난달 28일 만료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중시퇴출을 결정
 수주 실적이 개선됐고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식거래의 재개를 점치는 목소리
 반면 불확실성이 짙은 조선업 리스크, 회계부정과 횡령·배임에 따른 신뢰 저하 등을 이유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음
긍정론 올 상반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서 재무적 불안감이 상쇄; 대우조선해양이 내놓은 자구안을 무난히 이행
 회사가 보유한 우수한 인력·기술력과 국내 조선업에서 상징하는 의미 등도 증시 잔류에 무게
부정론 최근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기업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우조선해양은 심각하게 신뢰를 저버렸음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라고 공시한 이후에도 ...
 ...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이 터지면서 실질심사의 사유가 추가; 횡령·배임액은 4963억원(자기자본의 36.2% 수준)
 가장 최근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곳은 동아쏘시오홀딩스; 혐의액은 554억 원 정도다. 자기자본의 6.3% 수준
 거래소가 조선업 관련 회사의 기업공개(IPO)를 까다롭게 심사하는 기조를 감안했을 때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 재개는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분석도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감사 기준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10명 정도 규모의 산업은행의 관리단이 회사 내 상주하면서 자금 집행을 모두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

▽ 대우조선 풍력발전계열사 부도...900억원대 보증

<http://lnr.li/r64v>

전기 판매 및 풍력발전기 유지·보수 계열사인 'KODE Novus I, LLC'가 부도에 직면했다고 10일 공시
 미국에서 추진 중인 풍력단지사업의 개발자금이 미상환된 탓
 관계자는 "지난 채무조정 당시에도 거론됐던 사안인 만큼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

△ 대우조선해양, 18만t급 광석운반선용 LNG 연료탱크 개발

<http://lnr.li/FnbdD>

이번에 개발한 광석운반선용 LNG 연료탱크는 대우조선해양과 포스코가 공동개발한 고망간강(Mn)이 적용
 독립형 탱크인 Type-B로써 솔로싱(탱크 내부에 저장된 액체의 요동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에 강한 구조적 특성
 기존 알루미늄합금을 주로 사용하던 연료탱크에 비해 외부 충격에 강하고 공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
 제작에 필요한 생산비도 절반수준

▶ 중소형 조선사

▷ 성동조선 다음달 중순 일감 떨어져 휴직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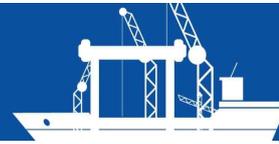
<http://lnr.li/iFsaB>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이르면 이달 말 나오는 실적 결과를 바탕으로 성동조선의 처리방향을 결정할 계획
 현재 건조 중인 선박을 다음달 중순께 인도하면 당분간 일손을 놓아야 하는 상황
 올 6월에 수주한 탱커(석유제품운반선) 5척은 내년 1월에 가서야 건조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다음달 중순부터 2개월가량 일감이 없기 때문
 성동조선의 직영근로자는 1천270여명 수준으로, 2010년 2천500명에서 절반으로 급감
 수은은 향후 성동조선의 독자적인 생존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7월 말부터 실사를 진행
 당초 9월께 실사 결과가 나오면 성동조선에 대한 '중대 결단'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실사 작업이 늦어지고 있음

△ 옛 STX계열사 새주인 찾기 '순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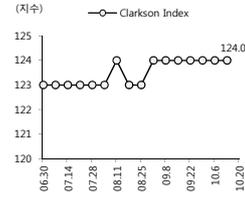
<http://lnr.li/0zZbe>

업계에 따르면 STX중공업은 13일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 지난달 21일 본입찰이 치러질 계획이었지만 ...
 ... 예비입찰에 참여한 다섯 곳의 후보가 실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20일가량 미뤄짐
 16일 인수의향서(LOD)를 접수하고 25일 본입찰을 추진; 매각 방식은 스톡홀름 방식으로 현재 세진중공업이 조건부 인수 계약을 체결한 상태
 스톡홀름 방식이란 인수자를 수의계약으로 미리 찾은 뒤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해 매각 측에 유리한 조건의 인수자를 선택하는 것
 STX엔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최종 조건을 협의 중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컴캐피탈,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 소시어스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이 대거 참여했지만 ...
 ... 방산업의 특성상 전략적투자자(SI)의 인수가 적합하다는 매각 측의 판단 아래 유암코가 우선권
 유암코는 지난 7월 삼강엔티와 손잡고 STX조선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을 1,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음
 삼라마이더스(SM)그룹이 인수를 추진하다 불발된 ㈜STX도 다시 매각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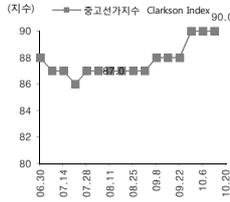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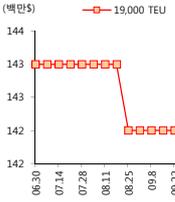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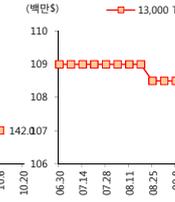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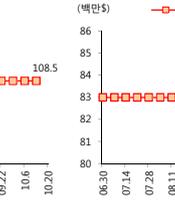
▶메가 울트라박스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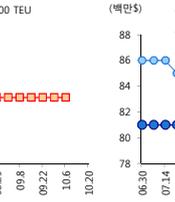
▶메가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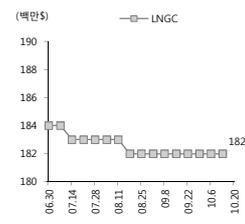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 8,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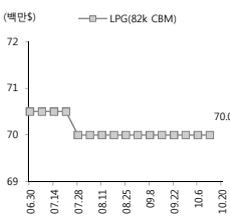
▶탱커 신조 vs 리세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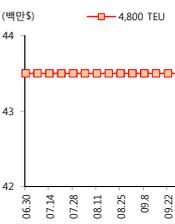
▶LN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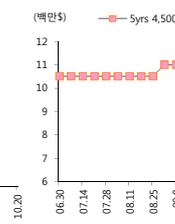
▶LP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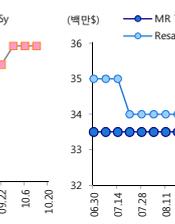
▶컨테이너선 - 신조선가 4,800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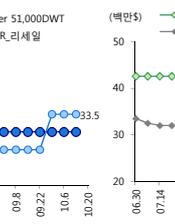
▶컨테이너선 - 중고선가 4,500teu



▶MR탱커 신조vs리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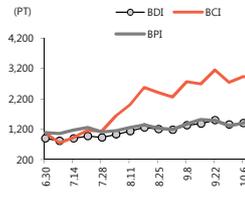


▶Capesize 벌크선 - 신조,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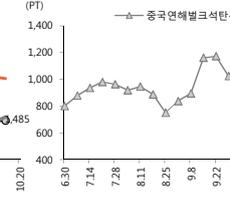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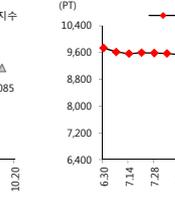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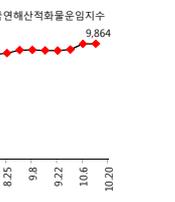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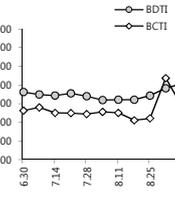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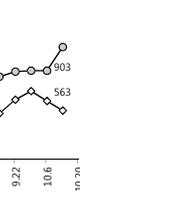
▶컨선



▶컨선 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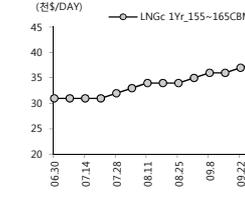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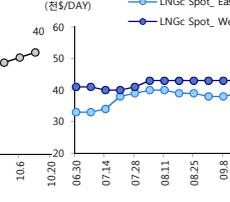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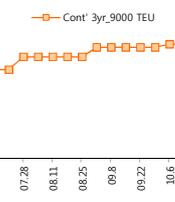
▶LNG선 1yr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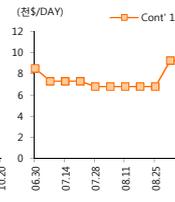
▶LNG선 S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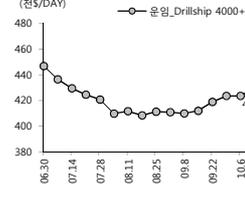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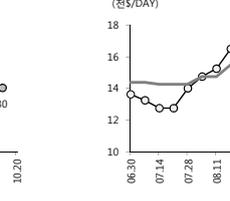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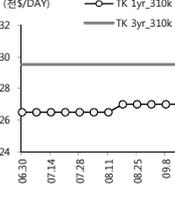
▶드릴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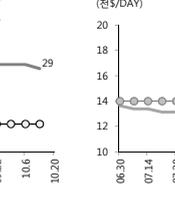
▶벌크선 - 케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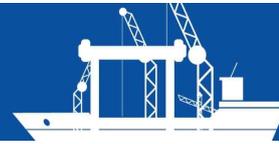


▶탱커 - VLCC



▶탱커 - M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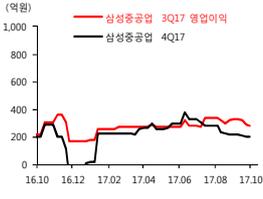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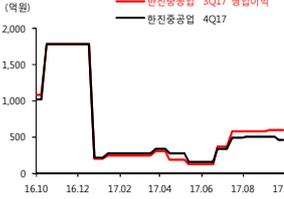
▶ 현대중공업



▶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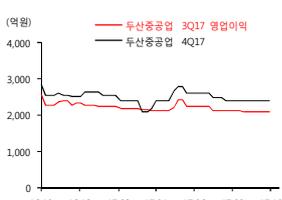
▶ 한진중공업



▶ 현대미포조선



▶ 두산중공업



▶ 두산인프라코어



▶ 두산발켓



▶ 두산엔진



▶ 현대일렉트릭



▶ 현대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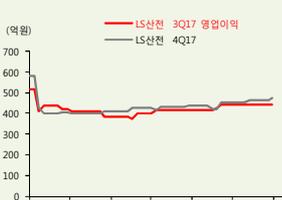
▶ 현대로템



▶ 현대엘리베이터



▶ LS산전



▶ 성광벤드



▶ 태광



▶ 하이록코리아



출처: Dataguide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17 EPS(원)								Chang(%)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09.16	17.09.23	17.09.30	17.10.07	17.10.13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17PER	증가
조선	현대중공업	13,362	4,946	5,977	5,985	25,579	25,579	25,579	25,579	29,011	385%	13%	5.2	152,000
	삼성중공업	319	298	287	270	284	284	292	273	286	6%	0%	41.3	11,800
	현대미포조선	3,914	4,054	6,383	9,201	9,729	9,691	9,747	9,747	10,822	18%	11%	8.9	96,800
	한진중공업	14	-203	-103	-123	-385	-945	-545	-474	-764	적지	적지	-5.2	3,940
두산	두산중공업	1,490	1,511	1,464	1,047	689	601	601	601	601	-43%	-13%	31.1	18,650
	두산인프라코어	785	811	816	878	888	888	902	902	896	2%	1%	10.3	9,200
	두산엔진	318	178	203	174	177	159	159	170	155	-11%	-12%	24.7	3,840
	계	0	27,546	29,191	31,298	30,769	30,846	30,846	30,387	30,502			12.5	381,500
기계	현대건설기계	0	26,837	27,560	27,300	26,424	26,323	26,323	26,323	26,323			9.2	242,500
	현대일렉트릭	0	27,546	29,191	31,298	30,769	30,846	30,846	30,387	30,502			12.5	381,500
	LS산전	3,596	3,575	3,673	3,862	3,900	3,900	3,900	3,900	3,925	2%	1%	14.6	57,300
	현대엘리베이터	5,580	5,325	5,326	4,926	4,420	4,290	4,290	4,290	4,290	-13%	-3%	12.0	51,600
방산	현대로템	706	656	648	523	469	469	469	433	413	-20%	-10%	41.4	17,350
	한국항공우주	2,519	2,503	2,439	2,200	1,553	1,553	1,489	1,489	1,418	-36%	-9%	33.6	47,700
	한화테크윈	2,270	2,255	2,163	1,964	1,793	1,793	1,764	1,764	1,717	-13%	-4%	19.3	33,150
	LIG넥스원	3,774	3,733	3,624	4,557	4,664	4,664	4,664	4,664	4,681	3%	0%	16.2	75,900
피팅	성광벤드	-27	-83	-75	-100	-148	-148	-189	-189	-189	적지	적지	-48.1	9,100
	태광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0%	0%	49.4	9,320
	하이록코리아	1,913	1,909	1,896	1,874	1,873	1,873	1,873	1,873	1,873	0%	0%	11.3	21,100
	계	0	234,645	231,663	232,512	267,853	267,992	267,992	267,992	282,415	11%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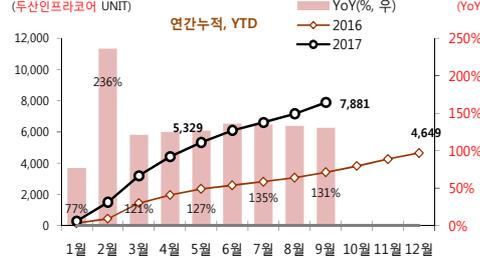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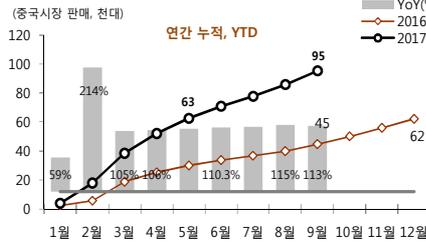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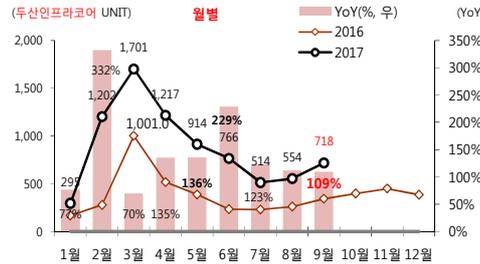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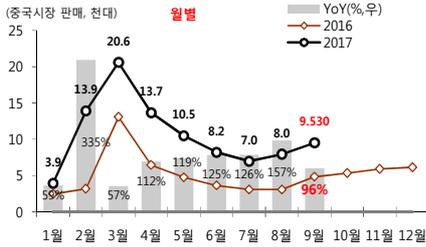
그룹	종목	2017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09.16	17.09.23	17.09.30	17.10.07	17.10.13	2017	2018	2017 PBR	
조선	현대중공업	310,679	209,808	207,239	205,482	218,598	218,598	218,598	218,598	218,632	13%	1%	0.7	
	삼성중공업	17,867	18,763	18,804	18,711	18,723	18,723	18,722	18,721	18,767	2%	1%	0.6	
	현대미포조선	113,387	112,189	116,105	119,596	122,063	119,996	119,523	119,523	118,773	9%	3%	0.8	
	한진중공업	10,278	8,806	8,833	8,810	8,656	8,330	8,330	8,594	8,594	-9%	4%	0.5	
두산	두산중공업	31,062	31,005	30,714	30,164	30,062	30,126	30,126	30,126	30,126	2%	5%	0.6	
	두산인프라코어	10,565	10,572	10,646	10,616	10,987	10,987	10,985	10,985	10,666	8%	9%	0.9	
	두산엔진	7,762	7,877	7,920	7,956	7,921	7,893	7,893	7,869	7,747	2%	2%	0.5	
	계	0	234,645	231,663	232,512	267,853	267,992	267,992	267,992	282,415	11%	13%	1.4	
기계	현대건설기계	0	232,775	232,450	225,780	243,098	242,828	242,828	242,828	242,828	11%	13%	1.0	
	현대일렉트릭	0	232,775	232,450	225,780	243,098	242,828	242,828	242,828	242,828	11%	13%	1.0	
	LS산전	39,174	39,138	38,940	39,086	39,113	39,113	39,113	39,113	39,428	10%	11%	0.0	
	현대엘리베이터	38,291	37,757	37,757	36,969	35,026	35,026	35,026	35,026	35,026	12%	12%	1.5	
방산	현대로템	17,142	17,085	17,066	16,964	16,854	16,854	16,854	16,799	16,758	3%	5%	1.0	
	한국항공우주	16,336	16,307	16,234	15,904	15,370	15,370	15,299	15,299	15,299	9%	15%	3.1	
	한화테크윈	45,533	45,802	45,520	45,246	45,013	45,013	44,926	44,926	44,892	4%	5%	0.7	
	LIG넥스원	31,499	31,402	31,298	32,127	32,229	32,229	32,229	32,229	32,241	15%	14%	2.4	
피팅	성광벤드	16,529	16,554	16,540	16,524	16,479	16,479	16,479	16,479	16,479	-1%	1%	0.6	
	태광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	2%	0.6	
	하이록코리아	24,035	24,001	23,849	23,849	23,800	23,800	23,800	23,800	23,800	8%	7%	0.9	
	계	0	234,645	231,663	232,512	267,853	267,992	267,992	267,992	282,415	11%	13%	1.4	

출처: Dataguide



금주의 그림

▶ 중국 굴삭기 9월 판매: YoY 시장 +97%, 두산인프라코어 +106%



다음주의 그림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잔여 일정

일정	주체	일정
10월13일(금) 오후 7시 14일(토) ~ 15일(일) 오후 4시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TV 생중계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15일	시민참여단	찬성/반대 설문조사
16일~20일	공론화위원회	숙의 과정 찬성/반대가 오차범위 벗어날 경우
		↓ 다수의견 기준 권고안 작성
20일(금) 오전 8시	공론화위원회	정부가 제출할 권고안을 확정
20일(금) 10시		공식 브리핑
이후	정부	정부가 여론조사 결과와 추이 등을 감안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또는 재개를 결정

탈원전 & ESS

▲ 한수원 "수출형 한국 원전, 유럽사업자협회 인증 심사 최종통과"...유럽 수출길 열렸다

<http://nr.ii/OrXOI>

9월 한국형 원전 APR1400의 유럽수출형 원전인 EU-APR의 표준설계가 유럽사업자요건(EUR-European Utility Requirements) 인증 본심사를 통과
EU-APR 표준설계는 국내 및 UAE에 건설중인 APR1400을 유럽 안전기준에 맞춰 설계한 것
이번 심사 통과로 한국은 유럽은 물론 EUR 요건을 요구하는 남아공, 이집트 등의 국가에 원전 수출이 가능해져 원전 수출시장을 다각화
관계자는 "최근 영국, 체코, 스웨덴, 폴란드 등 유럽에서는 기존 원전을 대체할 신규원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
... "특히 이번 EUR 인증 심사에 원전 도입 또는 사업협력 의사가 있는 유럽 사업자가 참여해 향후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중공업 등 한국원자력산업체는 지난 2011년 12월 EUR 인증 심사를 협회에 공식 신청, 2년에 걸쳐 예비 평가
평가 결과 본심사 착수를 위한 조건이 충족돼 지난 2015년 11월 본심사를 시작, 24개월만에 최종 인증

△ 한수원 찾은 체코 원전특사, 한국형 원전 도입에 관심

<http://nr.ii/AopID>

신규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체코가 한국형 원전(APR 1400) 도입에 적극적인 관심
12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안 슈틀러 체코 정부 원전특사 일행은 이날 한수원 부산시 기장군 고리본부와 울산시 울주군 새울본부를 방문해 ...
...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과 건설 역량을 확인하고 신규 원전사업 협력 방안을 협의
체코 정부는 내년 중에 신규원전사업 입찰제안서를 발급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

△ 백운규 산업장관 "원전 수출과 탈원전은 별개...수주 적극 지원"

<http://nr.ii/koJhw>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원전수출전략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수익성과 리스크를 따져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탈원전을 하면서 수출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일본 도시바 등 원전이 감소하는 나라도 원전 수출은 다른 트랙으로 하고 있다"며 ...
... "프랑스도 원전 비중을 50%까지 감축한다고 발표했지만, 원전 수출은 다 하고 있다"고 설명

▷ 백운규 장관 "탈원전과 신고리 공론화는 별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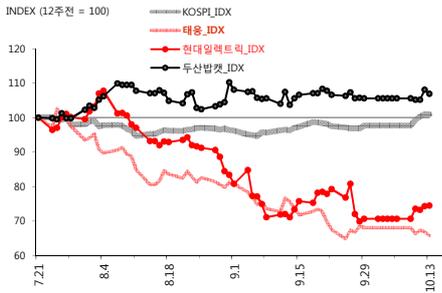
<http://nr.ii/N7zi>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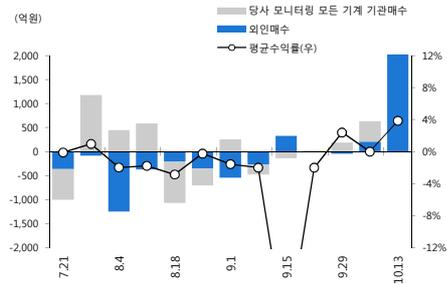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 당사 기계 선호주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당사 모니터링 모든 기계의 주간 수급과 시가총액 증감율



기계 업종 뉴스

건설기계

▶ 중국 9월 굴삭기 판매: YoY 시장 +97%, 두산인프라코어 +106%

<http://lnr.li/HM49Q>

지난달 중국 굴삭기 내수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97%, 전월대비 19.8% 증가한 **9530대**를 기록
올해 연간누적 기준 중국 내수 판매량은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145.4% 증가한 9만5327대를 나타내며 2016년 연간 판매량을 초과
업체별로는 Sany가 점유율 20.5%로 YoY 106.6% 증가한 1954대로 가장 크고, CAT(1165대), XCMG(1084대), **두산인프라코어(718대)** 등의 순서
두산인프라코어가 7.5%를 기록하며 연간 기준으로는 7881대를 판매; 현대중공업은 313대로 누적 2978대
30t 이상의 굴삭기 판매량 비중은 지난 5월 14.6%에서 6월 16.0%로 증가

▶ 현대건설기계, 싱가포르·홍콩서 '기업설명회'

<https://goo.gl/mrG4fk>

오는 16~19일 4일간 싱가포르와 홍콩 소재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공시

큰 기계들

▶ K2 전차 파워팩 국산화 물건너가나: 두산인프라코어의 엔진 + 독일산 변속기 추진할 수도

<http://lnr.li/nawyr>

1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K2 전차에 국내산과 독일산 부품이 혼용된 파워팩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핵심 부품인 변속기가 국내 규격을 맞추는 데 거들 실패하면서 (해외 변속기를 사용하는 걸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4년 K2 전차에 국산 파워팩을 적용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현대로템과 협력사들은 2015년 5월 양산품 제작에 착수한 후 현재까지 개발을 진행
두산인프라코어가 엔진을, S&T중공업이 변속기를 만들어 파워팩을 완성하면 현대로템이 이를 K2 전차에 탑재할 예정
S&T 중공업이 개발한 변속기는 지난해 1월 내구성 시험을 시작한 후 여섯 차례 고장을 일으킨 끝에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서 ...
... 국내산 파워팩 탑재 K2 양산 계획이 늦어지게 된 것
엔진은 그대로 두산인프라코어 제품을 사용하되 변속기를 독일 제품을 사용한 혼용 파워팩 탑재를 대신 검토하기 시작한 것
관계자는 "현재 두 제품을 혼용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시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

▶ 현대로템, 'K2 전차 양산' 양날의 검

<http://lnr.li/NlI6>

현대로템 방산부문에 K2 전차 1차 양산에 힘입어 3년 만에 외형이 2배 이상 커졌지만,
다만 S&T중공업의 변속기 결함 문제로 2차 양산이 9개월가량 지연되면서 1000억 원가량의 지체상금이 쌓였다는 점이 부담
내년 1월 변속기 업체가 바뀌지 않을 경우 손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큼
현대로템은 2014년 말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맺고 2019년까지 K2 전차 106대를 추가로 납품하기로 했지만,
파워팩 불량으로, 현대로템 창원공장에는 변속기 없는 K2 전차 몸체 50여 대가 방치돼 있고 협력사 119곳에는 1000억 원에 달하는 재고 물량이 쌓여있는
K2 전차 2차 양산이 계획대로 추진됐다면 지금까지 총 30여 대가 전력화되었어야 함
변속기 문제로 9개월 이상 손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으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
황: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만큼 현대로템에 불합리한 부담을 안기지는 않을 것
내년 1월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독일산 변속기 도입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차 양산은 불가능해질 확률이 높음

▶ 두산건설, 1338억 원 규모 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공사 수주

<http://lnr.li/8B7oA>

계약금액은 약 1338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10.5%이다. 계약종료일은 2024년 9월 말

▽ SRT열차, 탈선 위험..바퀴 삭제해야

<http://lnr.li/TxzfE>

SRT 열차 10편을 정밀측정한 결과 바퀴 4개로 구성된 130세트 중 35군데가 기준 미만
최근 3개월 동안 센서에 감지된 큰 진동만 135차례로 집계

한진중공업

▶ 한진중공업, 포스코건설에 춘천에너지 지분 일부 매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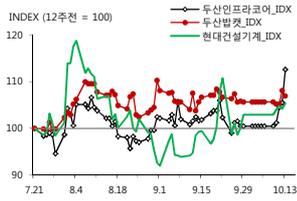
<http://lnr.li/1FnB6>

춘천에너지 주식 555만8154주를 총 277억9077만원에 포스코건설에 처분기로 했다고 13일 공시
이번 지분 처분 후 한진중공업이 보유한 춘천에너지 지분은 121만주(3.43%)로 줄; 보유지분 매각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가 목적



건설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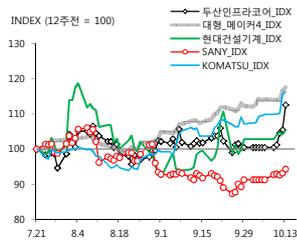
▶ 한국시장 상장 3사



▶ 대형 vs. 미니/소형 vs.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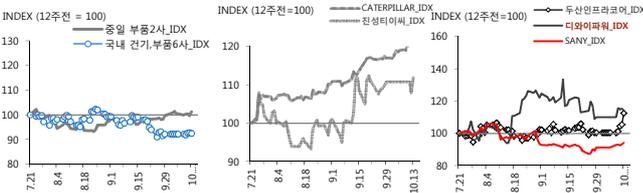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중, 사니, 고마쯔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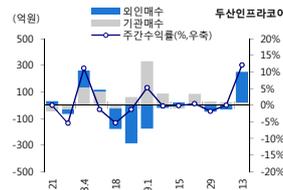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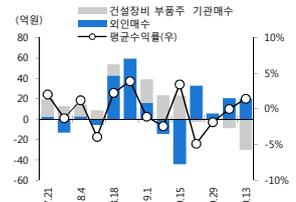


건설장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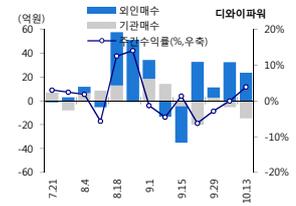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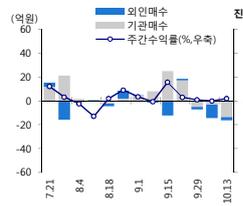
▶ 건설장비 메이커3사



▶ 건설장비 부품주



주식) 부품주4사: 진성티이씨, 디와이파워, 중국, 동일금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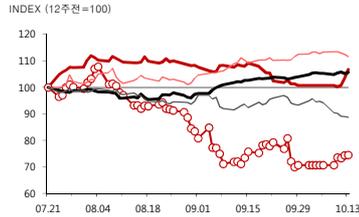


중전기

▶ 한국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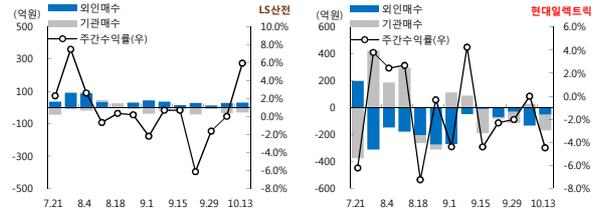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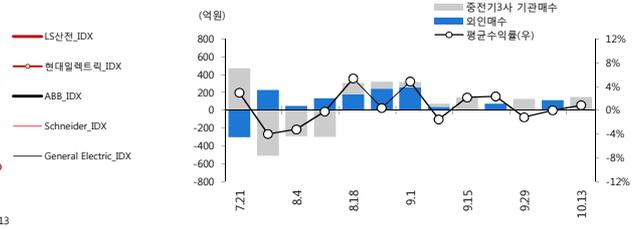


▶ 한국 풍력부품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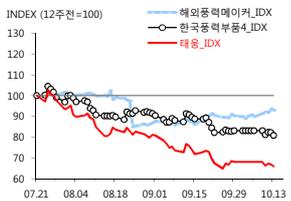
중전기 수급

▶ 풍력부품4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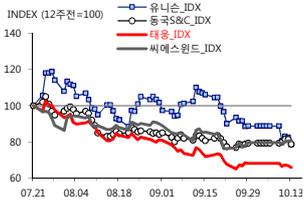


풍력

▶ 한국 풍력 부품사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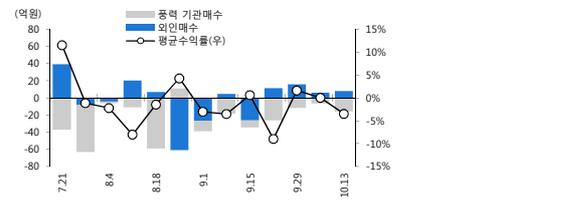


▶ 한국 풍력부품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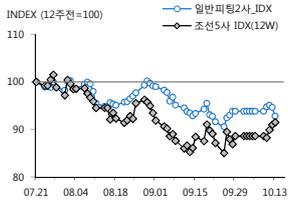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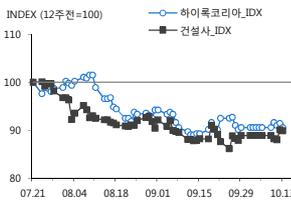
풍력 수급

▶ 풍력부품4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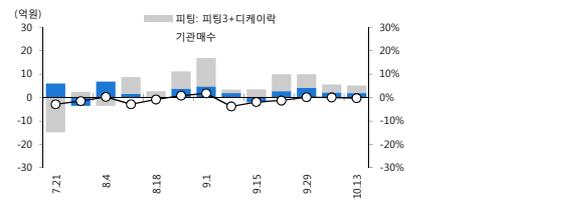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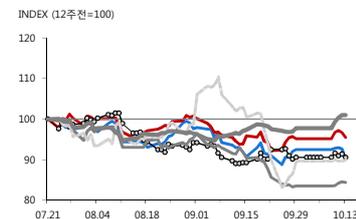
▶ 피팅 VS 전방1 건설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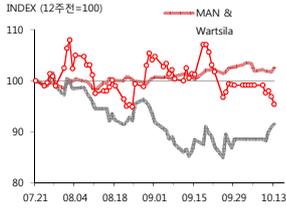
▶ 피팅 및 밸브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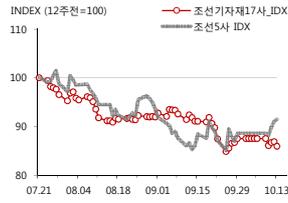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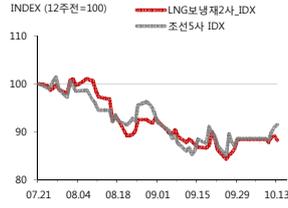


조선기자재

▶ 두산엔진 vs 조선5사 vs 해외 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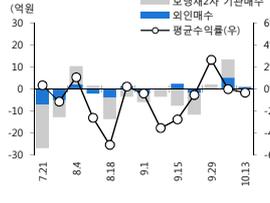


▶ 엔진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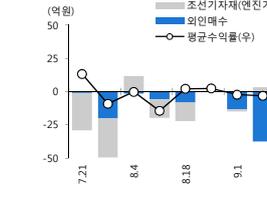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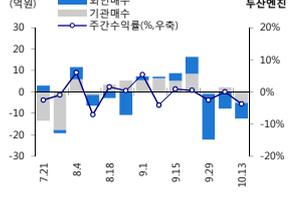


조선기자재 수급

▶ 보냉제 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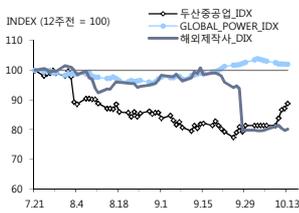


▶ 두산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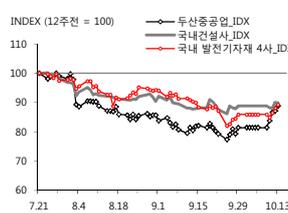


발전 및 발전기자재

▶ 두산중공업 VS 해외 Peer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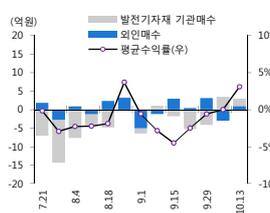


▶ 한국EPC vs 두산중공업 및 발전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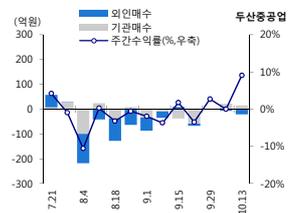


발전업 수급

▶ 발전기자재5사(두산중공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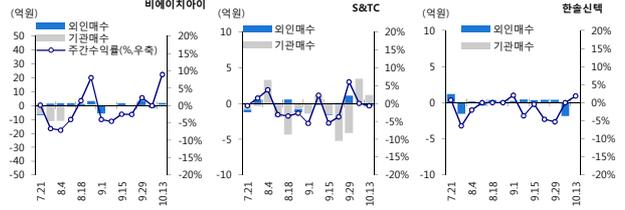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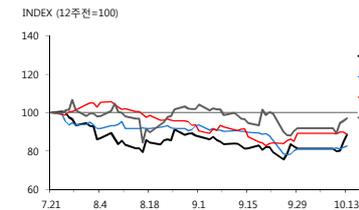


▶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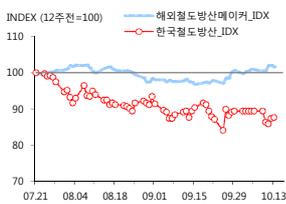
주식) 비에이지아이, S&T, 한솔신텍, 대경기계기술, 케이씨코트렐

▶ 발전기자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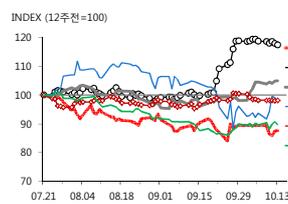


철도/승강기

▶ 철도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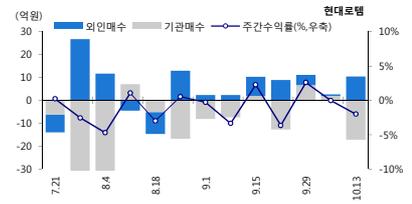


▶ 철도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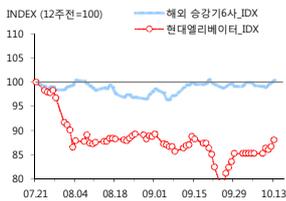


철도/엘리베이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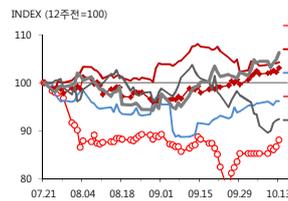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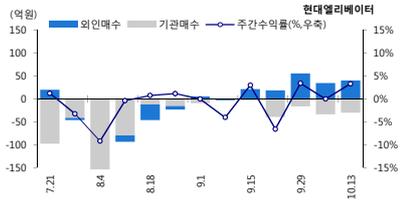
▶ 엘리베이터 vs Global Peer



▶ 승강기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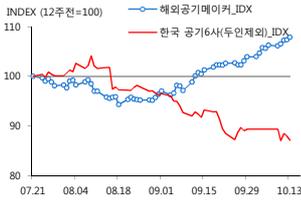
▶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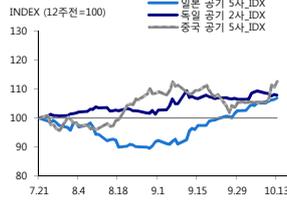


공작기계

▶ 한국소형6사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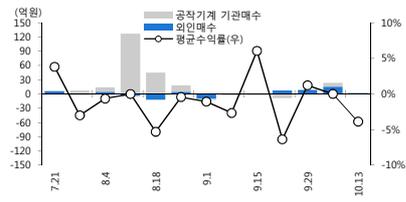


▶ Global Peer - 지역별



공기 수급

▶ 공작기계 부품 수급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에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당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최광식, 원민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율을 의미함.(2017년7월1일부터 적용)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 공시 2017-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89.2 %	10.8 %	-